



말의 향기

정기연 전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사람의 생각은 목소리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말이다. 생각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목소리다. 말에는 말씨, 말속, 말투가 있는데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있듯이 말에도 그 말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다. 말이 씨가 되게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말씨가 있으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어른들 말씀을 들으며 자랐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기분 좋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같은 말이라도 상냥스럽고 정겹게 하는 말과 통명스럽고 듣기에 거북하게 하는 말투가 있다. 말씀은 말의 존댓말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씨가 되어 성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불행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은 씨가 되므로 부모와 교육자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심사숙고해서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야 하며 함부로 실패할 거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

칭찬하는 말씀은 그것이 씨가 되어 성공하게 한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지만, 항상 선생님은 꾸준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을 거야, 좀 더 노력해 보자"하고 말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으나 "너는 어찌 그리 미련하냐. 남들은 잘하는데" 하며 비교하는 말로 꾸준하면 열등감이 씨가 되어 공부를 더 못하게 된다.

졸업식 날 가정이 가난하여 진학을 못 하는 학생에게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나는 네가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담임 교사의 정겨운 격려의 말씀은 씨가 되어 학생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그것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임 만금(전 담양동 교장)은 2014년 2월 말 정년퇴임 했다. 2013년 1월 6일 방학 중에 학교 근무하는 교장실을 노크하고 들어온 젊은 신사 한 분이 있었다. "임 만금 선생님! 저 이 성화가 성공해서 41년 만에 찾아와 인사드립니다."하고 큰절하는 젊은이는 41년 전, 임 교장이 초 임지 영광 백수 북 초등학교에서 6학년 때 담임한 제자였다.

이성화는 담임교사의 "성화는 꼭 성공할 거야"라는 말이 씨가 되고 각인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여 고학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여 벤처기업으로 성공해 부자 사장이 되어 담임 교사에게 선물로 그랜저 자동차와 1천만 원을 전달한 미담이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말은 씨가 되어 성공하

게 하는 말씀을 해야 한다.

말에는 "복(福)이 되는 말, 독(毒)이 되는 말"이 있다. 우리가 수없이 내뱉는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지만 죽이는 말도 많다. 같은 말인데도 누구는 복이 되는 말을 하고, 누구는 독이 되는 말을 한다. 말하는 말의 세 부류가 있다. 말씨, 말속, 말투가 그것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말씨),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말속), 말을 던지는 사람(말투)이 있는 것처럼 말에도 등급이 있다. 말씀은 말과 다르다. 어떤 분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이 감동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말씀이라 한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나 불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말씀은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말씀이다. 교회 성당 사찰에서는 목사 신부 주지승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신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간다.

말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다. 초등생 어린이에게 "씩씩하고 멋지구나. 넌 장군감이다." "넌 말을 잘하니 변호사가 되겠구나." 이렇듯 말에 복을 담은 습관이 필요하다. 좋은 언어 습관은 말씨를 잘 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전철에서 중년 여인이 경로석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건넨다. "어쩔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이다. 다음 역에서 중년 여인이 내리기 무섭게 "그냥 고우시네요. 하면 좋잖아. 늙은 거 누가 몰라." 말이란 뒤를수록 빛나고 향기가 난다. 말할 때도易地思之(易地思之)가 필요하며 말을 나눌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늘 염두에 두고 해서 실연이나 허언 같은 말실수를 안 해야 한다.

말은 자기의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상대방이 듣기 좋은 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너무 소리가 커도 안되며 작아도 안 된다. 분위기에 따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크기로 항상 고운 목소리가 나오도록 노력해서 말을 해야 하며 그것이 습관화돼야 한다. 통명스럽고 듣기 거북한 말소리(말투)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좋은 말씨가 되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고 듣기 좋은 말의 향기가 풍기도록 노력해서 말을 해야 한다.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이륜차 인도주행

신유철 보성경찰서 경무계장경감

기고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생계형 오토바이'인 배달용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인도를 활보한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를 '차'인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매김 하고있어 음식배달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더불어 배달용 오토바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배달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배달용 오토바이는 신속한 배달을 위해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및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감행하는 위험한 일들을 자행한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선정하여 홍보활동과 법규위반자를 상대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159조(배달종업원의 통고처분)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까지 처벌함으로써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다가오는 장마철, 전기사고 예방하자

김경선 담양119안전센터 소방장



장마는 여름철에 여러 날 비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를 뜻한다.

보통 장마 기간은 32일 내외로 2022년 장마기간은 6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7월 중·하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은 장마철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와 예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장마철에는 잦은 호우로 인한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전 등으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이 증가 하며 더운 날씨 등으로 노출되는 신체부위가 많아지면서 물이나 땀으로 인한 전기저항이 감소하면서 감전사고의 위험도가 커지게 된다.

젖은 손으로 콘센트나 전자기기 만지는 것을 피하며, 침수 위험이 있다면 모든 전자 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차단기를 내려 감전사고 위험을 최소화 하거나 침수된 지역을 도보로 지나는 경우 맨홀, 전봇대, 신호등 및 입간판 근처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마철에는 낙뢰사고 및 빗방기 및 제습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전기 화재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115,029건 중 6, 7월 장마철 발생한 화재는 16,701건, 14.5%를 차지한다.

지나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오래된 전선 피복은 전선에 물기가 스며들면 누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하며, 누전차단기를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가정에 있는 분말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확인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도로 갓길 농산물 판매 '위험천만'

김광언 강진경찰서 칠량파출소장 경감

기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도로 갓길에서 옥수수, 과일 등 농특산물을 파는 노점상들이 크게 늘고 있다.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텐트 등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으나 안전은 무시한 채, 오직 물건 판매에만 열중하고 있어 위험천만하다.

최근에는 농산물을 사려고 차량이 갑자기 갓길에 정차하려는 운전자와 뒤따르던 운전자 간에 시비가 되어 112신고가 접수되기도 한다. 필자의 관할구역인 국도23호선에 20여개의 농가에서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졸음운전 차량이 옥수수 노점상을 덮쳐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농산물 판매로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부채 해소에도 도움이 주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 소통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

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상에 설치된 간이 판매소의 경우 판매행위가 한시적으로 이루어 있어 단속권이 있는 자치단체나 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단속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최초 적발일로부터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까지 거의 3개월이 소요되어 단속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도로 갓길 노점상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판매장소를 지정해 주어 농민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농민들도 합법적인 판매장소 이외에 자기의 논과 밭 앞도로 갓길에 불법판매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와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의 안전이 조속히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